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한국 대표 Sonia Hong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을 닮은 그녀

〈박시〉, 〈소걸〉, 〈카지노〉,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라스베이거스는 우리에게 '도박'과 '섹스' 같은 어두운 이미지로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모습은 과거 영화 속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거의 매일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와 신제품 발표회,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으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최대의 컨벤션 도시로 발돋움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 뮤지컬 극장, 골프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매력과 그 가치를 알리는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한국 대표 쏘니아 흥, 그녀를 만났다.

에디터 | 최보윤 · 사진 | 노현우

“물론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6만 개의 객실을 기반으로 쇼핑과 액티비티, 다이닝 등 다양한 문화를 모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라스베이거스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쏘니아 흥만큼 ‘익사이팅(Exciting)’, ‘에너지틱(Energetic)’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2000년부터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대표를 맡고 있는 쏘니아 흥 소장은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만나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We invent Las Vegas! 새로운 빌딩, 호텔 등이 들어서고 끊임 없이 성장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를 두고 현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곳곳에서 있는 대형 타워 크레인만 봐도 알 수 있죠. 올드 베이거스가 가고 뉴 베이거스가 오고 있습니다.”

에디터를 만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그녀의 열성적인 말에는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직업으로 삼다 보면 지칠 만도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중학교 때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유니티드 항공, 케세이퍼시픽 항공 등의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홍보 분야의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서울에서 항공사 근무를 계속하다가 뉴질랜드 관광청이 한국 지사를 설립할 때 한국 대표 자격으로 관광청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관광·마케팅 분야의 일을 시작한 지도 30년 정도가 되었네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다는 그녀에게 관광 마케터라는 직업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라스베이거스의 변신을 주도하다

오랜 기간 관광 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이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는 도박과 향락의 도시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조성된 꿈의 가족 여행지로 이미지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6만 개의 객실을 기반으로 쇼핑과 액티비티, 다이닝 등 다양한 문화를 모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라스베이거스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전 세계는 라스베이거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저렴한 숙박비, 풍부한 객실, 편리한 교통(육로, 항공 등), 무한대의 공간 등 컨벤션 산업의 필수 조건을 골고루 갖춘 라스베이거스의 특성을 살려 1959년 형편없이 작은 규모로 시작된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산업은 1990년대 말 미국 도시들 가운데 10위 안에 들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정상적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카지노 타운이 아니다. 카지노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라스베이거스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즐기는’ 여행의 다섯 가지 즐거움을 모두 갖춘 ‘세계 오락의 수도’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라스베이거스 관광이 보편화되지 못했다. 직항 노선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비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라스베이거스의 직항 노선 취항이 시작되었고, 현재 한국인의 미국 비자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라스베이거스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랜 과제들이 해결되었으니 흥분할 만도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담담해 보였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동안 직항 노선 미비와 비자 문제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지 못했던 관광객들이 이곳의 다양한 도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요즘은 더욱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모습을 담은 쏘니아 흥 대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라스베이거스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라스베이거스가 더욱 화려하면서도 실속 있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즐기는’ 도시로 변화를 거듭할수록 웬지 쏘니아 흥의 얼굴이 자꾸 떠오를 것만 같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미래와 함께 더욱 빛을 발할 쏘니아 흥의 활약이 기대된다. ☺